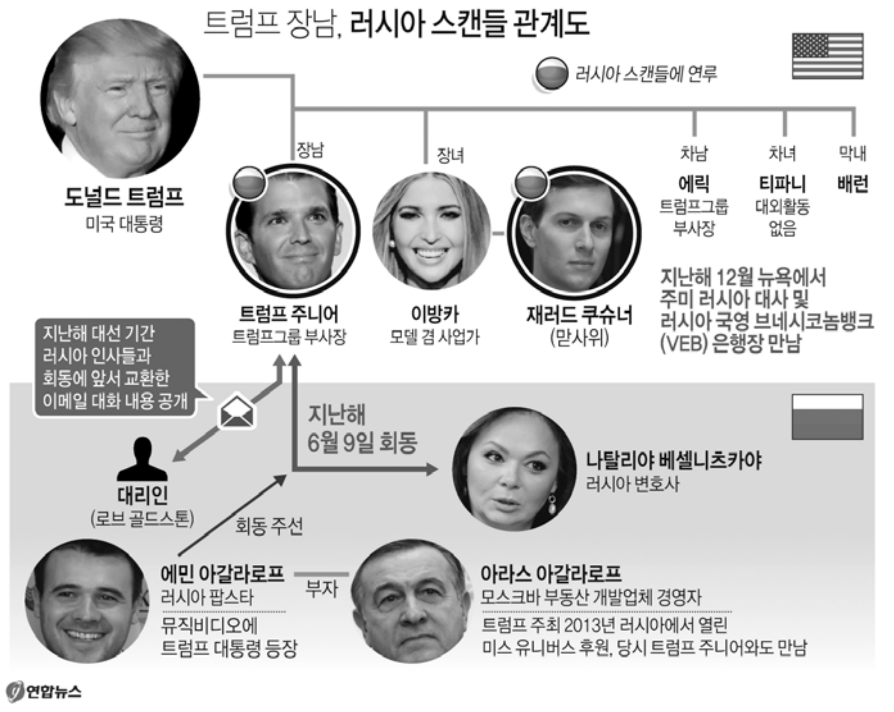
트럼프 장남 "러 인사 만났지만 시간만 낭비"

트위터·언론 인터뷰 통해
'러 유착설' 정면 돌파 나서
이메일 공개 반격 노렸지만
물밑 협상 전력 드러난 셈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러시아 인사들과의 회동이 '시간 낭비'였으며, 이 만남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1일(현지시간) 미 보수성향 보도채널 폭스뉴스의 뉴스쇼 '해니티'에 출연해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인사들과의 만남을 해명하며 러시아 유착설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 6월 9일 클린턴에게 타격을 가할 정보를 준다는 약속을 받고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변호사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와 만났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스(NYT)보도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베셀니츠카야와 만나기 전후에 아버지에게 이를 말했느냐는 진행자 숀 해니티의 질문에 트럼프 주니어는 "아니다. (만남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말할 게 없었다"며 "그야말로 낭비한 부끄러운 20분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나는 일을 조금 다르게 해야 했다"며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정보를 얻기를 기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측 인사와의 만남이 "상대 후보 조사였으며, 그들은 내가 들어온 모든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어 듣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아무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분명히 그런 회동이 아니었다"며 강조했다.

러시아 유착 파문이 불거진 후 첫 언론 출연인 이날 인터뷰에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화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이메일에서 회동을 주선한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의 대리인(로브 골드스톤)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후보를 도우려는 의도로 '클린턴이 러시아와 거래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보유한 러시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트럼프 주니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러시아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를 보유한 사람과 접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무언가 배후에 있는지 몰랐으며,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서 읽고 그에 맞춰 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80여명 용감한 시민들 '인간띠'…9명 구조 미국 플로리다 주 해변에서 80여 명의 피서객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조류에 휩쓸린 일가족 9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11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로버타 우르슬리 가족은 최근 멕시코만 밀러카운티 피어에서 물놀이를 하다 조난 사고를 당했다. 해변의 피서객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해변에서부터 우르슬리 가족이 조난한 지점까지 인간 띠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건설업체는 북한 노동자를 좋아해"

5만명 근무…뉴욕타임스 보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건설노동자들이 현지 건설업체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현지 르포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생활과 임금을 통제당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뇌물을 주고서라도 올 정도로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의 주택 개·보수업체들도 북한 노동자들이 숙련됐으면서도 임금은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모스크바의 호화 아파트단지 건설현장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NYT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노예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를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상납하기 때문이다. 현지의 건설업체 대표는 월급 가운데 정부에 '압수'당하는 부분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늘어, 2006년에 매월 1만7000루블이던 것이 현재 5만루블(약 841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용한 북한인 가운데 가장 임금이 높은 사람의 경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수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한 북한 인권 기관은 북한 정부가 러시아에 파견한 국외 노동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외화수입을 매년 1억2000만 달러(138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북한 국외 노동자 수는 5만 명 정도로 봤으나, 다른 연구기관들은 3만~4만 명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연합뉴스

美,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관세율

덤핑 최종 판정…최대 44%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 LG화학 등이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션 스티렌-부타디엔(ESB) 고무를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에 팔고 있다며 덤핑 긍정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 대해서는 44.30%, LG 화학과 그 외 ESB고무 생산 및 수출 한국 기업에는 9.6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관리청(ITA)에 따르면 포스코대우와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측 조사에 답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내게 됐다. 이외에도 브라질과 멕시코, 폴란드의 고무 생산업체도 각각 19.61%, 19.52%, 25.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으로의 ESB 고무 수출액은 한국이 50만3000달러(약 5억8000만원)에 그쳐, 브라질(2980만 달러)과 멕시코(2310만 달러), 폴란드(340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해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열린 시장(미국)에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공정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과 일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24일까지 자국 산업피해 관련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8월 30일 상무부가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아베 "북한 석유 주지 말라" 요구에 시진핑 "독자 제재는 없다" 선 긋기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로 석유 수출 중지를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독자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국이)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낸 뒤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독자제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석유 수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까지 중국은 연간 50만t의 석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2014년 이후 통계상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은 없지만, 수면 하에서 석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참사 피한 캐나다 항공기 사고, 美 정밀 조사

역대 최악의 참사를 낳을 뻔했던 에어캐나다의 착륙 시 유도로 접근을 놓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등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한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지난 7일 오후 11시 56분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여객기는 28R 활주로 대신 유도로C 로 접근했다가 관제탑으로 긴급 복행(Go-around·착륙 시도 실패 뒤 재착륙을 위해 잡는 비행방향) 지시를 받고 가까스로 유도로를 벗어났다.

이에 FAA는 에어캐나다가 어떻게 유도로로 착륙하려 했는지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에어캐나다도 자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신안다리 옆**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 **시세 - 1억 3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함,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